

“신라석불은 한국인 얼굴”

TBC-TV 초파일특집 ‘경주 남산부처님의 얼굴’ 24일 방영

성형의학·등고선 촬영등 과학적 접근



경주 남산부처님의 얼굴에는 신라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불심이 반영돼 있다. 사진은 남산 삼화령석조삼존불상중 본존불의 얼굴 모습.

천년전 만들어진 신라석불얼굴과 현대한국인의 얼굴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TBC(대구방송) TV가 개국 1주년을 맞아 남산부처님의 얼굴(PD 김도현)을 제작하여 오는 24일 저녁 7시 방영한다. 보리사석불좌상 칠불암마애석불군 경주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삼화령이거부처님, 석굴암부처님 등 남산의 석불얼굴과 현대인의 얼굴과를 비교·조형함으로써 양자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신라석불의 얼굴이 당시

사람들의 얼굴모습을 그대로 따른 것인지 혹은 마음(불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유추해 보는 프로그램. <한국인의 얼굴> 저자인 조용진교수(서울고대)와 성형외과 의사 최시호 박사, 정병국교수(동국대 고고미술학과)가 출연하여 성형외과 고고미술학적인 관점에서 이문적 뒷받침을 하고 통도사 효법스님이 종교적 입장에서 조사결과를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형적인 경상도인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남산석불의 중앙과 하인의 비율이 1:0.9로 현대인의

기준인 1:1에 비해 약간 짧다는 사실을 밝혔다. 석불의 대부분이 동굴면에서도 각진 얼굴형으로, 현대인의 기준이랄 수 있는 달걀형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 초기 석불의 눈은 행인형(杏形) 살구씨모양이나 후기로 갈수록 가늘고 길어지며 양볼은 패어져 근엄하면서도 자애로운 얼굴모습을 가진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제작에 들어간 이 특집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객관적 타당성을 높였다. 석불 하나하나에 대해 실측 및 등고선 촬영을

했고 아울러 과거 신라인의 인공을 등고선 촬영한 후 현재의 경상도사람의 얼굴과의 비교도 시도했다. 김도현 PD는 “기존의 막연한 조사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려고 노력했다”며 “현대표준미의 눈 코 귀 등의 형태 및 수치와 석불의 그것을 비교해 보았다”고 말한다. “경주 남산부처님의 얼굴”의 구성자가 이진이씨도 “석불의 모습은 신라인의 모습 그 자체이기보다 주

로 신라인들의 이상적인 생각과 신앙심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정서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온다”고 결론지었다.

대구=이윤호 기자

문화 단신

‘영한대조 불교성전’ 발간

영한대조 불교성전이 현암사(대표 조근태)에서 발간됐다. 해운스님이 일본 불교전도협회에서 발간한 <화영(和英)대조 불교성전>을 번역해 영한대조 불교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했다. 영한대조 불교성전은 영한대조 불교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했다. 영한대조 불교성전은 영한대조 불교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했다.

서암스님 법어집 ‘월월’

숨 돌릴 틈도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이 배어 있는 생활법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서암스님(전 조계종 중흥)의 법어집 <월월>이 나왔다. 이 법어집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점들과 하루를 살더라도 자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는 이들에게 바르고 알기 쉽게 근본을 꿰뚫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또한 혼탁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에 대한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23일 ‘만해 시낭송의 밤’

만해스님 시집(님의 침묵) 발간 70주년을 기념하는 ‘만해 시낭송의 밤’ 행사가 오는 23일 북촌창우극장에서 개최된다. 만해스님의 생애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시에 맞춰 춤 노래 시창 등이 적절히 배합한 이번 행사는 시와 시학회가 마련했다. (02)736-8320

‘불교문화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홍기삼교수는 “불교와 문학은 언어라는 공동의 토대를 갖고 있고 불교문학의 본질적인 조건을 논의하는 데 있어 언어와 상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불교문학의 개념규정에 대해 △불교경전 및 부처님가르침에 관계되는 저작물 자체 △경전 및 불교적인 것을 표현한 문학체 △불교적인 관심을 문학형식으로 창작한 것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소개한 홍교수는 그러나 작품의 구체적 연구가

조계종은 민족정신과 민족문화의 맥을 이어온 불교예술이 서구화 및 왜곡된 시각으로 인하여 경시되어가는 풍토를 극복하고 친린한 불교문학의 진수를 재발견해 계승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20일부터 23일까지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불교미술 문학 음악 성보 등 불교문화전반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21일 ‘불교문학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홍기삼교수(동국대 국문과)와 김재홍교수(경희대 국문과)의 발표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홍기삼·김재홍교수 ‘불교문학현황과 전망’ 세미나

“사상수용등 내적조건 갖춰야 불교문학”

수반되지 않는 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등장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 표면적 조건보다 내적 조건에 따라 성격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지혜를 통해 추구되는 최상의 가치며 진리사상이 불교라 할 때 거기에 살아숨쉬는 호흡이 되는 것이 문학의 언어라 지적한 홍교수

는 “생명이며 힘의 원천인 언어가 무상의 지혜와 궁극적인 진리를 수용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어디에 서도록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는 정적으로 불교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작가의 몫”임을 강조했다. 이어 “불교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의형적인 불교사상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한 문학의 정신이나 방법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현대불교문학의 전개와 반성-현대문학의 중심’을 발표한 김재홍교수는 불교문학이란 사상성 종교성도 구별되고 아울러 문학으로서의 예술적 감동도 획득해 내야 한다는 “불교문학은 불교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인 동시에 문학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함께 지닌다”고 설명했다. 1920년 근대문학초창기부터 십년다위 년대별로 불교시인들의 성과를 열거한 김교수는 불교와 문학이 타협하게 승화된 대표적 작품으로 만해 한운스님의 <님의 침묵>을 들었다. 또한 서정주는 불교문학의 질과 양을 크게 고양시킨 대표적 인물로 대중과의 친화력도 갖게 형성시켰고, 김지하의 연작시집 <애린>과 오현수의 연작시 <절간이야기>는 불교문학의 탁월한 진면목을 보여주는 작품이

라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불교문학의 지력과 완성화를 위해서는 불교문학인의 체계적인 발굴과 육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위있는 불교문예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생명의 근원전 오는 27일까지 마포 서남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생명의 근원전’. 민족환경운동불교예술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는 강행인 김삼섭 김영만 김형섭 두시영 김운성 문인상 박찬갑 박홍순 이덕환 서영석 서보용 이미숙 정경연 하수경 황남재 홍기삼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동성스님 선사화전 동성스님(마산 봉곡사 주지)의 선사화전이 지난 15~21일 조원갤러리에서 개최됐다. 과격적 달마상을 통해 깨달음을 향한 선정삼매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 개막식에는 월탄 성타 현해 시현 현광스님 김용정·전영화교수 이상범시인 등 1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불미협 회원전 제3회 한국불교미술인협회가 지난 15~21일 인사동 덕원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영화 이억영 김대일 박찬갑 박명순 서보용 진철문 현정 이덕환 손연철 김길원 김양수 오용경 이호신 최영애 허민욱 김영덕 홍재연 이화자 김신교씨등 31명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생활속의 불교 74

죽어야 만날 수 있는 생명의 법

누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했던가. 꽃은 화사하고 숲은 신록으로 빛난다. 만물은 약동하고 못 생명은 너도 나도 다투어 삶의 노래를 부른다. 숲으로 발길을 옮기면 여기 저기서 일제히 ‘나로소이다’ 하고 뽀내는 소리가 들린다. 5월은 긍정의 계절이다. 평등의 계절이다. 거부하지 않고 일체를 살리는 계절이다. 이런 싱그러움 계절이면 해마다 우리는 부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다. 무더운 여름도 추운 겨울도 아닌 것이 불자들에게 작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불법은 일체를 살리는 법이다. 무명에 잠긴 중생을 건져 올려 대공정의 세계로 이끄는 법이다. 무너져버린 만물을 지치게 하는 법이 아니고, 추운 겨울처럼 만물을 움츠리게 하는 법이 아니다. 5월처럼 만물을 기르고 키우는 신록의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 못 생명 이 봄을 맞아 제각기 존재를 뽐내듯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기양껏, 제우껏,

마음껏 삶의 가치를 발전토록 하는 법이다. 불법은 평등의 법, 열린 법이다.

5월이 생명을 차별하지 않듯이 불법도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다. 꽃은 꽃대로 새는 새대로 나무는 나무대로이듯이,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웃은 이웃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수용하고 살린다. 불이(不二)의 법이요, 무분별의 법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일러 주신 불어법, 무분별의 세계는 무엇인가. 그 법은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인식에 머물지 않는다. 그 법은 옳으니 그르니의 가치 분별을 넘어섰다는 말 속에 조차 들지 않는다. 그러한 인식, 그러한 말이 우리를 선행과 화쟁으로 인도하기는 하지만 부처님께서 일러 주신 법은 그 너머의 경지를 가리킨다.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려, 보시하고 나



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은 가치가 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도 뜻이 깊다.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심성은 순화되고 사회는 건전해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사바 세계에 몸을 나누신 뜻은 무명을 넘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보여 주시려 한 데 있다. 그저 착하게 살라, 남을 도우며 살라, 싸우지 말고 화합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오셨다면 그런 말은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와 내가 참으로 둘이 아닌 경지, 시비분별을 넘어선 진리의 세계 - 온갖 생명이 그대로 싱그러움, 그대로 다툼이 없는 차원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불법공부는 죽는 공부라고 한다. 첫째로 내가 죽고 둘째로 나와 남이 죽고 셋째로 나와 남과 일체가 죽어야 비로소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 내가 ‘나’로서

안전하게,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뿐 아니라 못 생명, 자연도 마찬가지다. 고로 서로가 둘이 아니라면 먼저 ‘나’가 죽어야 한다. 장그리 죽어야 한다. 나로서 죽고 남과 더불어 죽고 일체와 함께 죽어야 ‘나’나 ‘너’나 ‘대상’이니 하는 분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법은 죽는 법이다. 내가 죽음으로써 부처가, 부처로 사는 법이다.

둘이 아닌 법, 대공정의 법, 무분별의 법, 평등의 법은 죽어야 안다. 죽음으로써 참 삶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일체를 살리는 불법은 죽어야 만나는 생명의 법이다.

부처님 오신 달, 싱그러움 5월에 모두 죽어 진짜 봉축을 해 보자. 싱그러움 삶의 길을 찾아 나서 보자.

협찬: 주인공